



우리가락 project
제13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숨색다른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 歌謠의 만남 II

길 석 근 예술감독
이 복 남 사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후7시 30분
장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KCCO (사)한국작곡가협회

현대음악
Contemporary
Culture Group

주최 /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 / 서울문화재단 · (사)한국작곡가협회 · 우리가락교육연구회

공연문의 / 010-2324-9978 전석 2만원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 향기 짙은 이 저녁,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서악회의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色多른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 II>는 동서악회가 작업해오던 우리가락 Project 열세 번째 시리즈로서 고려가요를 주제로 합니다. 현재 한국의 K-Pop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전 세계의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가요”라는 실타래를 잡고 거슬러 올라가면 7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 평민들과 사대부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널리 전해졌던 “고려가요”를 만나게 됩니다. 고려가요라는 문화유산이 지금은 불리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도전 과제이자, 현시대에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고려가요 주제 중 자연, 효, 슬픔, 사랑, 군무의 내용을 다룬 2022년 정기연주회에 이어, 2023년에는 호국, 사랑, 제례에 해당하는 나머지 고려가요들을 다룸으로써 2년에 걸친 고려가요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올해 연주회에는 특별히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작곡가 교수이자 카엔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Christopher Adler님을 초청작곡가로 모셔 고려가요 위촉곡과 카엔 전통곡의 즉흥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과 서를 아우르는 작곡가들이 리메이크를 넘어서 이 시대의 정서에 맞는 새롭고 창조적인 음악으로 재탄생시킬 고려가요가 우리들의 가슴에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연을 위해 작품을 써주신 작곡가들, 연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연주자와 스태프들, 그리고 동서악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관객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동서악회 회장 이 북 남 올림

New season has rushed into us as we feel the scent of autumn.

I am very delighted to inform you that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will be hosting the 13th regular concert.

<Are there many colors? Rendezvous of Contemporary Music and Goryeo Song II>, the 13th episode of Korean Garak Project series that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has been working on, is based on the theme of Goryeo songs.

K-Pop is currently drawing global attentions to Korean culture. However, if you trace the thread of Korean “pop” and go back, you will come across “Goryeo song” that was widely transmitted to the people, including commoners and noblemen. “Goryeo song” embraces the joys and sorrows of our ancestors about 700 years ago.

Although Goryeo song is no longer sung, they inspire artists living in modern times and are still a valuable assets that can be used at any time in this era.

Our regular concert last year featured nature, filial piety, sadness, love, and group dance among the themes of Goryeo songs. In 2023, our two-year project will be completed by covering the remaining Goryeo songs related to patriotism, love, and rituals and complete .

For this year’s concert, I especially invited Christopher Adler, a khaen player as well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an Diego. He will present an improvisation of traditional khaen song and premiere commissioned work with a theme of Goryeo song.

I expect that new Goryeo songs recreated by composers and performers from both East and West will bring emotion and joy to the audience.

I would like to convey my sincere gratitude and thanks to the entire team who worked hard to make this concert possible and to the audience who showed interest and came for the concert.

Boknam Lee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태국전통민요

라이야이의 즉흥 연주

Improvisation in Lai Yai

Khaen (카엔) Christopher Adler

이현진

Hyun-jin Lee

“대금과 첼로를 위한 ‘침묵沈默’ - 이상곡履霜曲” (세계초연)

“No Answer” for Daegeum and Violoncello

첼로 고준영 / 대금 윤석만

김광희

Kwang-Hee Kim

신과 함께 가라 (세계초연)

Vaya con Dios

해금 허윤재 / 25현 가야금 이해정 / 아쟁 한규아 / 타악 이상경

- Intermission -

이해미

Hae-mi Lee

다로렘 다리러 (세계초연)

Daroreom Darireo

첼로1 주윤아 / 첼로2 김경란 / 타악 이상경

Christopher Adler

(초청작곡가)

나레 (세계초연)

Narye

Khaen(카엔) Christopher Adler / 정악가야금 이해정 / 대금 윤석만

김은혜

Eunhye Kim

태평성대를 꿈꾸며... (세계초연)

Dreaming of Taepyeongseongdae...

카운터테너 이희상 / 거문고 이선희 / 대아쟁 최혜림

타악(장구, 정주, 재금, 박, Suspended Cymbals) 김태정

태국전통민요

라이야이의 즉흥 연주

Improvisation in Lai Yai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의 전통악기인 카옌은 길이가 다른 대나무 관들을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마우스오르간 계열의 악기이다. 전통적으로 카옌곡은 독주나 노래의 반주로서 즉흥으로 연주한다. 이 곡은 라이 야이(Lai Yai)의 선율 모드의 즉흥 연주이며 다양한 전통 장르로 된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The Khaen is a bamboo free-reed mouth organ from Laos and Northeast Thailand. Traditionally, music for this folk instrument was improvised, either solo, or as accompaniment for a solo singer. This is an improvisation in the Lai Yai melodic mode, with sections in different traditional genres.

이현진

Hyun-jin Lee

“대금과 첼로를 위한 ‘침묵(沈默)’ - 이상곡(履霜曲)”

“No Answer” for Daegeum and Violoncello

죽음과 같은 이별로 인하여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대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이상곡(履霜曲)은 직접적인 시어로 시적 자아의 애타는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이러한 시어의 표현 중에서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상대에게 질문하는 가사는 결국 시적자아의 번뇌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자 다짐의 가사로 돌아온다. 질문을 던지는 대상이 실재(實在)하지 않기에 돌아올 수 없는 대답, 그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에 시선을 두고 작업한 이 작품은 대금과 첼로를 각각 남겨진 시적 자아가 있는 현실의 세계, 떠난 임이 있을 가상(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빚대어 그 사이의 갈등과 결국 남겨진 것에 대해 표현하였다.

Isanggok, one of the Koryugayo, expresses the longing for a lover who can no longer be met due to a farewell. This song expresses the singer's sorrow using direct lyrics. The lyrics that repeatedly ask questions to a lover who can no longer respond, especially, are the idea behind my work. This work focuses on the silence that arises from asking questions to an unresponsive lover. This work focuses on the silence that emerges when questions are directed toward a lover that cannot be answered, and it portrays two characters from different worlds through the medium of the Daegeum and cello.

김광희

Kwang-Hee Kim

신과 함께 가라

Vaya con Dios

이 작품의 제목은 독일 영화 ‘Vaya con Dios’에서 가져왔다. 원래 스페인어에서 따온 영화 제목은 ‘신과 함께 가라’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신과 함께 하라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내게 주제로 주어진 고려가요 중 대국을 찾아보니 본래 신들에게 드리는 제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무속음악이며 신에게 복을 빌고 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들을 들으며 신에게 오로지 찬양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신과 함께 한다고 믿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가 연상되었다.

짧은 노래 세 개로 구성된 대국은 조금 느리게-보통 빠르기-조금 빠르게의 템포로 이루어졌으며 각 노래는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의 후렴구로 서로 연결돼 있다. 대국과 같은 템포 변화를 하며 역시 세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대국의 노래 선율과 영화에 나오는 찬양 중 대미를 장식하는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엮어 나간다. 마지막 부분에서 후렴구인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와 찬송가의 아멘이 함께하며 끝나는 이 곡에서 선율, 화성, 대위 등 동서양의 음악적 화합을 시도해보았다.

The title of the work originated from the German film “Vaya con Dios”, which translates to ‘Go with God’ in Spanish, has a deep meaning to share our lives with God. Among the Goryeo Songs given to me as a main theme, I looked up Daekuk, a shamanic music that prays and praises God. Listening to these songs, I imagined those monks in the film who believe the only way to be with God is by singing hymns. Daekuk consists of three short songs in Adante – Moderato – Allegretto tempo, which is linked to the refrain of Yali Yali Yala Yalasung Yala. This work also follows the form and tempo changes of Daekuk and weaves the melody with the hymn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from the very last part of the film, concluding the music with the refrain of Yali Yali Yala Yalasung Yala and Amen from Hymns. I tried to embrace elements from both Eastern and Western music as well as modern techniques from each instrument.

이해미

Hae-mi Lee

다로렘 다리러

Daroreom Darireo

"산수청량(山水淸凉) 소 와, 청량(淸凉)애 두스리 물어디새라, 도량(道場)애 오시 니, 남종과 두 남종과, 열세 남종 주 라, 바회에 나 새라 다로렘 다리러, 열세 남종이 다여위실 더드린, 니를 뵈셔 와지, 성인무상양산대륙(聖人無上兩山大勒)아 다로렘 다리러" (내당 가사) 이 곡은 고려가요 ‘내당’에 나오는 가사와 선율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작곡되었고, 곡의 제목인 ‘다로렘 다리러’는 고려가요 ‘내당’에 나오는 후렴구 가사이다.

‘내당’은 원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무가(巫歌)로서 내당 또는 내불당(內佛堂)에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 그러나 궁중에 유입되어 악장 중 속악가사의 하나로 불려짐으로써 무가적 기능과 악장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의 내용은 여성 화자(話者)가 열세명의 남종과 오래도록 살고, 욕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노래는 5음음계의 계면조가 사용되었다. 내당의 선율을 차용하여 여성 화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랑관을 음악적으로 그려보았다.

This piece was composed with ideas from the lyrics and melody of Goryeogayo‘Naedang’. The title of the piece ‘Darorum Darireo’ is the lyrics of the refrain from the Goryeo gayo ‘Naedang’. The content of the lyrics expresses the desire of a mistress to satisfy her lust by living with 13 male servants for a long time. By borrowing the Naedang’s melody, I musically expressed the mistress’s active and free view of love.

Christopher Adler

(초청작곡가)

나레

Narye

‘나레(Narye)’는 악귀를 쫓기 위해 고려시대로부터 행해지던 의례이며, 왕실의 제사나 외국 사신들을 맞을 때에도 행해졌다. 이 작품은 ‘나레가’에 나오는 시의 단편들과 공연자로서 광대가 등장하는 것과 같이 나레 의식 장면을 암시하는 선율에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다. 나는 이 작품을 위하여 대금, 정악가야금(혹은 풍류가야금), 그리고 라오스와 태국북동부의 전통악기 카옌을 선택하였다. 카옌은 생황과 같은 동아시아 마우스오르간의 전신으로 크고 깊은 소리를 지닌다.

이 작품은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며 각 악장은 상상 속 나레의 초상들이다. 1악장은 광대들의 춤, 2악장은 곰 가죽을 입고 4개의 금빛 눈을 가진 공포스러운 가면을 쓴 방상시(Bangsangsi)의 제례 동작, 그리고 3악장은 대금과 카옌이 재구성된 나레 선율들을 연주하며 대부분 역사에서는 사라진 의식의 신비한 명상을 그렸다.

Narye is an ancient ritual from the Goryeo period that served to exorcise demons from the kingdom, including for royal funerals and the welcoming of foreign dignitaries. The inspiration for this composition is the Naryega, a fragmentary poem and reconstructed melody with allusions to the scenes of the narye ritual, including the presence of clowns as entertainers. I selected three instruments for this work, daegum, jeongak or pungnyu gayageum which is the type of gayageum that could have been found during the Goryeo period, and the largest and deepest of my khaen, the free-reed mouth organ of Laos and Northeast Thailand which is a predecessor of East Asian mouth organs such as the saenghwang. The three movements are imaginative portraits of narye: dances of entertainer clowns, the ritual action of the Bangsangsi who wear bear skins and frightful masks with four golden eyes to scare the spirits, and a mysterious meditation on a ritual largely lost to history, which includes quotations of the reconstructed Nareyga melody played by both daegum and khaen.

김은혜

Eunhy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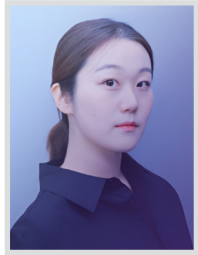
<태평성대를 꿈꾸며...>

Dreaming of Taepyeongseongdae...

카운터테너, 대아쟁, 거문고, 타악을 위한 <태평성대를 꿈꾸며...>는 한국 고유의 음악인 향악의 악보를 기록한 악보집인 시용향악보에 실려있는 고려가요 중 무가에 속하는 세편의 노래 - ‘구천’, ‘군마대왕’, ‘삼성대왕’ - 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만들었다. ‘구천’은 중국 고대 민속적 신명인 ‘구천현녀’에서 유래되어 우리나라에 와서 무속과 결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설은 아무 뜻이 없는 구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말신(馬神)에게 제사 지낼 때 무격에 의해 불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군마대왕’의 사실 또한 뜻이 없는 구음으로만 되어 있다. 반면 ‘삼성대왕’은 궁중의 악장 가운데 속악 가사의 하나로 채택되어 무가의 기능과 악장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은 환인, 환웅, 단군천왕일 수도 있고, 무당의 신격인 옥황상제, 노자, 염라왕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 도가에서 모시는 관성제군, 문창제군, 부우제군의 삼위를 지칭할 수도 있다. 가사 내용은 기은, 기복(왕가의 복을비는 행사)의 기능을 가진 무가로서 후렴구에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어가는 주술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구천’에서의 “리로 리런나 로리라 리로런나....”, ‘군마대왕’에서의 “리러루 러리러루 런리러루....”, ‘삼성대왕’에서의 “라롱다리 삼성대왕....”과 같은 사실의 공통점은 리을 음(“ㄹ”)이 보여주는 강력한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는 악기와 카운터테너의 조화로운 변화된 반복진행으로 구성된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 염원하는 태평성대를 꿈꾸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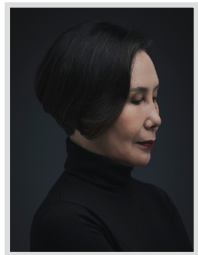
Dreaming of Taepyeongseongdae... for Counter-tenor, Ajaeng, Geomungo and Percussion intends to reinterpret and create a modern version based on three songs belonging to the Goryeo Gayo, "Gucheon," "Gunma the Great," and "Samsung the Great," which are included in the Siyonghyang Music, a scorebook that records the score of Hyangak, Korea's own music. It is presumed that "Gucheon" originated from "Gucheonhyeonnyeo," an ancient Chinese folk deity, and was combined with shamanism in Korea, and the editorial consists of only oral sounds that have no meaning. The editorial of "King Gunma," which is thought to have been called by martial arts during the ritual to the horse god, is also written only in a meaningless oral sound. On the other hand, "Samseongwang" was adopted as one of the vulgar lyrics of the court's movements and is presumed to have the function of a shamanic song and a movement. Samseong can be Hwanin, Hwanwoong, Danguncheonwang, or the gods of the shaman, Jade Emperor, Laozi, and Yeomrawang, or the third rank of Gwanseongjegun, Munchangjegun, and Buujegun enshrined in Taoism. The lyrics are composed of magical lyrics that contain unknown sounds in the chorus as a shamanic song with the function of Gieun and Gibok (a royal blessing event). The editorials, such as "Liro Lirona Lori Lori Lori Runna..." in "Gucheon," "Liro Lori Lori Lori Lu" in "Gunma the Great," and "Larong Bridge Samsung the Great..." have strong magical powers, and we all see today's dream of harmonious musical instruments and counter tenors.



이현진 Hyun-jin Lee

작곡가 이현진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2013년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통해 데뷔하였고, 재학 중 서울대학교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에서 기획한 ‘SNU Young Composer’s Studio’, ‘TRIO CATCH Concert’, ‘SNU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Final Concert’ 그리고 윤지희 체임버오케스트라 시리즈에서 공모당선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움직이는 시각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감각적으로 음향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음향적 요소를 중심으로 음악적 서사를 구성한다. 물리적인 움직임 자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움직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의 작품의 주요 키워드이며, 자칫 표제적일 수 있는 소재를 다루면서도 범람하지 않는 낭만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Hyunjin Lee earned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rom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of Music colleg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made her debut through the Chosunilbo Debut Concert(76th) and presented her work at SNU Young Composer’s Studio, TRIO CATCH Concert, UNJI Chamber orchestra series XIII. She primarily draws inspiration from moving visual materials to create sound in a sensory manner, and constructs musical narratives centered around these sonic elements. Furthermore, she meticulously crafts her works, balancing the handling of iconic subjects while avoiding an excessive focus on romanticism.



김광희 Kwang-Hee Kim

김광희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Minnesota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과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하였고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윤지희 회장,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동서악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작곡가협회, 하트-하트재단, 콜텍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ISCM 한국위원회, (사)ACL-Korea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불가리아, 미국 등에서 연주되었다.

Kwang-Hee Kim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She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she received her Bachelor of Music and Master of Music degrees. She also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Music Theory and Composition from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University of Minnesota in the USA. She was a former invited professor at Myung-Ji University and Myung-Ji College, and a former board member of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oundation ‘TIMF’ in Korea. S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of Contemporary Music ‘UNJI’ and a supervisor of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She is also a board member of Korean Composers Association, Heart to Heart Foundation and Cortek Corp. Foundation and a member of ACL-Korea, Korean section of the ISCM and Korean Composers Association. Her works have been perform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Germany, Japan, China, Russia, Bulgaria and the USA.



이해미 Hae-Mi Lee

이해미는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Hochschule für Musik Freiburg)에서 작곡 Diplom, 독일 칼스루헤 음악대학(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에서 음악학 Master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한국여성작곡가회, 21세기악회, ACL-Korea, ISCM 등에서 다수의 창작곡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 발표한 곡 'Dreisam'과 'Where am I going'이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인 '토마토클래식 TV'에서 방영되었다. 현재 (사)한국작곡가협회 실행이사로 활동중이며, 명지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수원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Haemi Lee studied composition at Yonsei University. After that, she graduated Diplom in Composition at Hochschule für Musik Freiburg and Master in Musicology at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in Germany. She is a member of various composition associations and lectures at Yonsei university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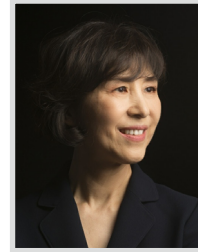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아들러 Christopher Adler

크리스토퍼 아들러는 1972년에 태어났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대학에서 음악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그는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 지역의 전통악기인 카옌을 위한 현대음악의 세계적인 선도자로서 전 세계의 작곡자들에게 작품을 위촉받고 초연하였다. 2022년에는 국제국악워크샵에 참여하여 앙상블 더 거문고(The Geomungo, 이선희), 이정화(가야금), 류수연(해금)을 포함한 한국전통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곡을 작곡하였다. 그의 작품은 Tzadik과 Innoval에, 카옌과 피아노를 위한 연주는 Centaur 및 Vienna Modern Master와 같은 레이블과 New Music for Khaen CD 시리즈에 발매되었다. <http://christopheradler.com/>

Christopher Adler is a composer, performer, improviser, and Professor of Music and Director of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an Diego, in California, USA. His music draws upon nearly three decades of research into the traditional musics of Thailand and Laos, a background in mathematics. He is the world’s leading innovator in contemporary concert music for the khaen, the bamboo free-reed mouth organ of Laos and Northeast Thailand, and has commissioned and premiered works by composers from around the world. He attended the International Gugak Workshop in 2022 and has composed works for performers of Korean instruments, including Ensemble (The Geomungo) directed by Sunhee Lee (Gayageum) and Soo Yeon Lyuh (Haegum). His compositions have been released on many labels including Tzadik and Innoval, and his performances on khaen and piano are on labels including Centaur and Vienna Modern Masters, as well as his own New Music for Khaen CD series.

<http://christopheradler.com/>



김은혜 Eunhye Kim

작곡가 김은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두 편의 가곡 오페라 <도깨비동굴>과 <며느리방귀 북방귀>와 오랫동안 발표해 온 <십이지>와 <아라리> 시리즈가 있으며, 피아노 모음곡 <십이지>는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았다. 2022년 2월, 25년간 재직했던 수원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김은혜는 최근 두 편의 칸타타 - 부산칸타타 <일향악세계가>와 국악칸타타 <종묘제례악>를 초연하였으며, 앞으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를 사용한 작품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려 한다.

Composer Eunhye Kim (b.1956) earned her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rom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a doctorate in musicology from Sorbonne University in Paris, France. Her major works include <Zodiac sign> and <Arari> series, which she has released for a long time, and her piano suite <Zodiac sign> won the Korea Composition Award. In February 2022, Eunhye Kim, who retired from Suwon University, where she had served for 25 years, premiered two cantatas - Busan cantata Ilhyangaksegi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cantata Jongmyojerye-Ak in the same year. And she will try to communicate with various people through works using themes that can be easily found around her.

<色多른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 가요 歌謠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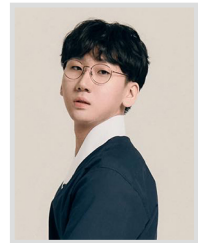
연주자소개



사회 / 이복남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동서악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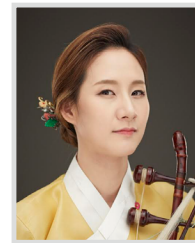
예술감독 / 길석근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우리가락교육연구회 회장
동서악회 부회장



첼로 고준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
KBS교향악단 객원 역임
김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단원



대금 윤석만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이수자(악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원
출강
동아 국악콩쿠르 일반부 은상,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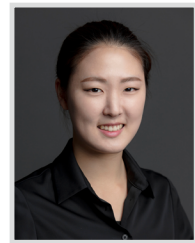
해금 허윤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졸업
제14회 대한민국여성성진통예술행연대회
기악부 금상
현 수원대학교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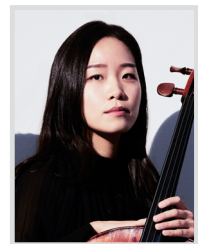
25현, 정악가야금 이해정
경기가야금앙상블 대표
제25회 청원아철전국국악대전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34회 대구국악대전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최우수상



아쟁 한규아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제37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아쟁부문 금상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한일섭제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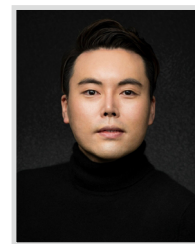
타악 이상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2023 제교, 프랑스, 케나다 초청공연
2020 제14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



첼로 주윤아
과천시립교향악단 연주단원
크로스챔버 오케스트라단원
Ensemble Eins 단원



첼로 김경란
앙상블 비트윈 멤버
Quartet SOL, Ensemble UND
한세대, 전주교대 출강



카운터테너 이희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예술사,
전문사 졸업
프랑스 에콜노르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거문고 이선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단원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득 거문고
산조 이수자
앙상블 The Geomungo 대표



대아쟁 최혜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강사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타악 김태정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임원소개

- | | |
|-----------|---|
| 임원 | 회장: 이복남 / 부회장: 길석근 / 감사: 김광희 / 사무총장: 이해정 / 재무이사: 박윤경 / 연구이사: 심유주 / 연주이사: 윤석만 / 홍보 및 기획이사: 김수혜 |
| 회원 | 김은혜, 김위연, 김종균, 류경선, 이효원, 정미선, 정현수, 최영아, 권용상, 김규환, 김솔림, 김진찬, 성상연, 연홍관, 이지연, 조수황, 허윤재, 허정임, 황상열 |
| 간사 | 이현진 |

제13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色多른가요? 현대음악과 고려 가요^{歌謠}의 만남>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후7시 30분

장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

동서악회 · 불가리아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The Society for East West Music & The International Festival Sofia Music Weeks)

1. 불가리아 Momchil Georgiev 초청세미나 (Bulgaria Dr. Momchil Georgiev Seminar)

일시 및 장소: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푸르지오홀

2. String Quartet "Frosch" 초청: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교류음악 (Korea.Bulgaria Exchange Concert with String Quartet "Frosch")

일시 및 장소: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 푸르지오홀

초청연주자: Negina Stoyanova(Violin), Petya Dimitrova(Violin),
Mariya Valchanova(Viola), Teodora Atanasova(Cello)